

보도시점 (온라인) 2026. 10. 12.(월) 12:00
(지 면) 2026. 10. 13.(화) 조간

행안부, 지역의 임신·출산·보육 서비스 등 지역 맞춤형 인프라로 채운다

- ‘2026년 지역맞춤형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 10개 지방정부 최종선정
- 통합돌봄거점, 임신·출산 서비스, 실내놀이·긴급돌봄 등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 자율적으로 확충

행정안전부는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5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2026년 지역맞춤형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 신청을 받아 28개 사업을 심사한 결과, 10개 지방정부를 최종 선정해 특별교부세 총 5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최종 선정된 지방정부는 ▲전남광주 동구 ▲전남광주 담양군 ▲대구 남구 ▲대전 동구 ▲세종시 ▲충북 단양군 ▲충북 영동군 ▲전북 고창군 ▲경북 경주시 ▲경남 밀양시 10곳이다.

공모사업은 지역마다 다른 임신·출산·보육 관련 필수 서비스의 공백을 지방정부가 직접 진단하고,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에 맞는 기반시설을 자율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행정안전부는 공모 대상을 전국 모든 시·군·구로 확대하고, 기존과 같이 정해진 유형의 시설을 일률적으로 조성하기보다 지역이 필요로 하는 임신·출산·보육 기반시설을 자율적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했다.

특별교부세 50억 원은 지방정부별 신청액 등을 고려해 각 지역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며, 최종평가 최상위 사업인 단양군에는 총 지원 규모 범위에서 재원을 추가 배분한다.

특히 이번 공모에는 인구감소지역 6곳과 관심지역 3곳뿐 아니라, 일반지

역 가운데 전체 인구 대비 0~5세 인구 비중이 4.9%로 전국 시·도 중 가장 높은 세종도 선정됐다. 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필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영유아 돌봄 수요가 높은 지역의 돌봄 인프라 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사업 추진 이후에도 부지 선정, 설계, 착공, 준공 및 운영 등 단계별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우수사례는 다른 지방정부와 공유·확산할 계획이다.

진명기 자치혁신실장은 “저출산 대응을 위해서는 지역마다 서로 다른 임신·출산·보육 서비스의 공백을 생활권 안에서 촘촘하게 채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번에 선정된 사업들이 주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지역 맞춤형 지원 기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과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자치혁신실 균형발전제도과	책임자	과 장	김민정 (044-205-3501)
		담당자	사무관	임지은 (044-205-3442)



참고1

2026년 지역맞춤형 저출산 대응 공모 선정 사업

시군구	주요내용
전남광주 동구 (관심지역)	장난감도서관과 실내놀이터, 공동육아방을 비롯해 시간제·24시간 긴급돌봄 공간, 여성 재취업·창업공간, 상담실 등을 갖춘 양육지원 거점공간 조성
전남광주 담양군 (인구감소)	평화온누리센터에 어린이·유아 실내놀이기구와 인공지능(AI)·영상체험관, 가족휴게공간 등을 조성하고 실내·외 체험프로그램 운영
대구 남구 (인구감소)	기존 시설을 디지털·창의 중심의 체험놀이와 돌봄·교육·상담, 부모지원 기능이 결합된 가족양육지원 공간으로 재구성
대전 동구 (관심지역)	세대통합어울림센터에 영유아를 위한 촉감·창의·활동놀이 공간을 만들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세종시	복합커뮤니티센터 안에 실내놀이터와 장난감 대여, 가족활동 공간과 함께 부모와 자녀가 요리를 함께할 수 있는 쿠킹특화형 공동육아나눔터 조성
충북 단양군 (인구감소)	매포 여성발전센터를 리모델링해 육아종합지원센터, 교육실, 지역아동센터, 공공형 실내놀이터 등을 한곳에 모은 종합 돌봄거점 조성
충북 영동군 (인구감소)	보건소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해 예비부모 교육, 임산부 건강관리, 영유아 성장발달 지원 등 지역 내 분산된 임신·출산 서비스 통합 제공
전북 고창군 (인구감소)	기존 육아종합지원센터 인접 부지에 장난감 보관·세척·대여공간과 부모·자녀 놀이교육 및 체험공간 확충으로 높은 이용수요 대응
경북 경주시 (관심지역)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로 영유아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에 실내놀이터, 장난감·육아용품 대여실, 어린이도서관, 부모교육실, 가족라운지를 갖춘 지상 3층 규모의 통합센터 조성
경남 밀양시 (인구감소)	밀양시는 옛 밀양대학교 햇살캠퍼스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영유아·초등학생 돌봄공간과 친환경 실내놀이터, 단시간 돌봄실을 조성하고 부모교육과 취업지원 기능 연계